‘사유’의 정체를 묻다


국보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

국립중앙과학관, ‘생각 중’展
10월 18일까지 창의나래관서
과학, 예술 융합한 이색 전시
조각상 자세와 뇌 활동 조명
생각 · 기술 접목 미래도 그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사유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고유의 행동이다. 그렇기에 동서양을 막론하고 예술가들은 사유의 자세를 조각이나 도상으로 구현해 왔다. 과학, 예술, 인문학을 융합해 ‘생각(사유)’이라는 보편적 행위를 화두로 삼은 이색 전시가 열린다.

국립중앙과학관(관장 직무대리 김황식)은 “7월 14일부터 10월 18일까지 창의나래관 특별전시실에서 과학, 예술, 인문학을 융합한 특별전 ‘생각 중(Thinking or Calculating)’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의 기획 방향성은 대화형 인공지능(AI)이 질문을 받으면 화면에 ‘생각 중…’이라고 표시되는 모습에서 착안됐다. ‘AI는 정말 생각하는 것일까’, ‘인간의 생각은 어디에서 시작되고, 몸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과학·예술·인문학적 탐구가 이번 전시에 담겼다.

전시는 생각하는 자세를 담은 대표적인 두 조각상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이하 반가사유상)’과 ‘생각하는 사람’에서 출발해 뇌 안에서 일어나는 신호와 몸의 자세, 인공지능과 로봇에 이르기까지 ‘생각’이 드러나는 여러 층위를 차례로 짚어간다. 관람객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아가는 과학적 탐구를 제안하는 것이 이번 전시의 목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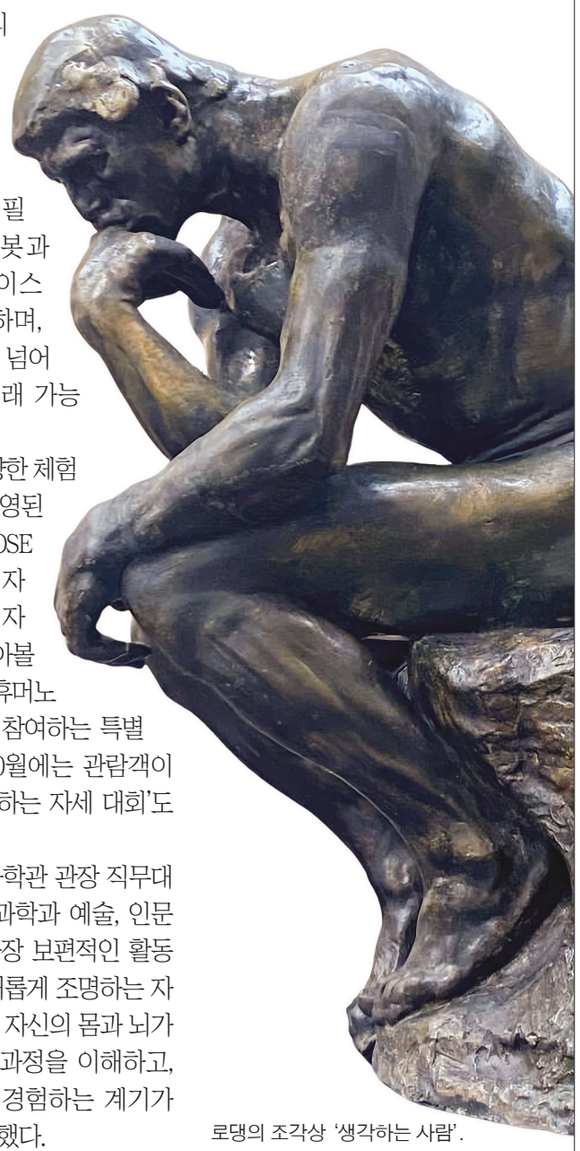
전시는 ‘생각’의 과정을 스스로 질문하고 탐구할 수 있도록 네 개의 주제로 구성된다. 1부 ‘생각이란 무엇일까’에서는 AI의 연산 과정과 인간의 사유 과정을 비교하며 생각의 의미를 살펴보고, 2부 ‘생각은 어디서 시작될까’에서는 뇌 속에서 일어나는 전기·화학적 신호를 통해 생각이 만들어지는 원리를 소개한다.

전시의 하이라이트인 3부 ‘생각과 우리 몸’에서는 ‘반가사유상’과 ‘생각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몸의 자세와 뇌 활동의 관계를 조명한다. 뇌파 측정 기술이 없던 시대에도 예술가들은 인물의 자세를 통해 ‘생각’의 상태를 표현하고자 했다. 이번 전시에서는 이 같은 예술적 통찰에 착안해, 이완된 자세의 ‘반가사유상’과 깊은 사유에 잠긴 ‘생각하는 사람’을 비교하며 몸의 자세와 뇌 활동의 관계를 살펴본다. 전시장에서는 두 조각상의 모형과 함께 뇌파 변화를 시각적으로 구현한 미디어아트를 통해 생각과 몸의 연결성을 흥미롭게 체험할 수 있다.

4부 ‘생각은 몸이 필요할까’에서는 로봇과 뇌-컴퓨터 인터페이스(BCI) 기술을 소개하며, 생각이 인간의 몸을 넘어 기술과 연결되는 미래 가능성을 보여준다.

전시 기간에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된다. 상설 프로그램 ‘POSE 16: 나의 생각하는 자세’에서는 관람객이 자신의 사고 유형을 알아볼 수 있으며, 8월에는 휴머노이드 로봇 도슨트가 참여하는 특별 해설이 진행된다. 10월에는 관람객이 직접 참여하는 ‘생각하는 자세 대회’도 열릴 예정이다.

김황식 국립중앙과학관 관장 직무대리는 “이번 전시는 과학과 예술, 인문학이 함께 인간의 가장 보편적인 활동인 ‘생각’의 의미를 새롭게 조명하는 자리”라며 “관람객들이 자신의 몸과 뇌가 만들어내는 사고의 과정을 이해하고, 생각하는 즐거움을 경험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로댕의 조각상 ‘생각하는 사람’.

화폭에 담은 낙원 향한 여정

무우수갤러리, 전호태 작가 초대전

‘옻칠역사화’ 새 장르 선봬
삼국유사 설화, 화폭 구현
7월 15일부터 8월 3일까지

〈삼국유사〉 속 다양한 설화들을 ‘옻칠역사화’라는 새로운 장르로 구현해 낸 작가의 전시회가 열린다.

서울 무우수갤러리는 “7월 15일부터 8월 3일까지 전호태 옻칠역사화 초대전 ‘낙원 가는 길’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호태 작가는 고구려 고분벽화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은 역사학자다. 반구대 암각화를 비롯한 한국 고대의 역사와 미술, 문화를 오랜 시간 연구해 왔으며, 그 성과를 어린이 교양서부터 전문 연구서까지 다양한 저술로 풀어내왔다. 이번 전시는 그 오랜 연구가 화폭으로 옮겨온 자리다.

전 작가는 우리 신화와 역사에 담긴 이야기, 그리고 〈삼국유사〉 같은 옛 기록의 문장을 옻칠화로 그려낸다. 오랫동안 고분벽화의 복원과 재현에 매진해 온 작가가 이번 전시에서는 복원에서 한 걸음 비켜나 재해석과 창작의 세계로 들어섰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전시 제목 ‘낙원 가는 길’은 낙원을 그리거나 그곳에 이르는 길을 안내하지 않는다. 오히려 옛사람들이 상상한 낙원은 어떤 곳이었는지, 그 낙원으로 가기 위해 그들이 어떤 꿈을 품고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를 되묻는다.


전호태 작가의 옻칠역사화 작품 ‘정토왕생을 꿈꾼 사람들(영월 청령사지 출토 나한상)’.

이번에 선보이는 작품들은 대부분 〈삼국유사〉의 기록에서 출발한다. 곡옥의 형상으로 태어나는 신라 김알지 신화, 해와 달의 정기가 된 연오랑·세오녀, 신선이 되기를 꿈꾼 신라 경문왕, 보살의 경지에 이른 사복, 그리고 동해 용왕의 아들 처용의 출현까지 다양하다.

작가는 신화와 설화 속 인물들을 반구대 암각화의 고래, 천마총의 신라식 용, 고구려 무용총 벽화의 신선 같은 실제 유물·유적의 형상과 엮어 화면에 되살린다. 몽골 청동기시대 유적을 그린 사슴돌 시리즈처럼 시선을 동아시아로 넓힌 작품들도 함께 만날 수 있다.

서예가이기도 한 작가는 전서·예서·해서·행서 등 여러 서체로 옮긴 〈삼국유사〉의 기록이나 도연명의 ‘도화원기’ 같은 문장을 그림과 나란히 배치한다. 글과 그림이 한 화면에서 조응하는 이 작업은 문인화의 현대적 변주라 평가할 만하다. 40여 년간 오직 그림을 읽고 해석해 온 학자가 이제 그 축적을 자신의 붓과 옻칠로 풀어내는 셈이다.

무우수갤러리는 “역사 기록을 눈으로 확인하는 자료가 아니라 마음으로 상상하는 이야기로 바꾸어 놓는 것이 바로 작가의 옻칠역사화가 지닌 힘”이라며 “낙원을 꿈꾸었던 옛사람들의 마음을 따라가는 이번 전시가 관람객에게도 저마다의 낙원 가는 길을 그려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신중일 기자

사찰 정보 ‘한눈에’ 불교포털 ‘절로’ 오픈

교계 뉴스 · 복지 · 박물관 등
6300여 건 불교 정보 담아

전국 사찰 정보부터 예불 생중계, 순례. 교계 뉴스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불교종합포털 ‘절로(jullo.k-buddhism.kr)’가 최근 오픈했다.

그간 불교 정보는 분야별로 나눠져 필요한 것을 찾으려면 일일이 검색할 수밖에 없었다. 불교종합포털 ‘절로’는 6300건이 넘는 불교 정보를 모바일 포털로 결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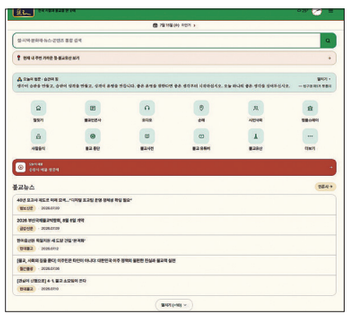
주요 카테고리로는 △절 찾기 △불교 종단 △불교 사전 △오디오 △시민사회 △템플스테이 △불교 유산 △불교 유튜버 △사찰음식 등이다.

‘절로’의 주요한 기능 중 하나는 그날의 불교를 한눈에 보여준다는 점이다. 주요 사찰 예불이나 법회, 행사를 라이브로 연결하고 예불, 절 찾기, 순례, 불교박물관, 템플스테이, 뉴스, 불교 종단 등 핵심 기능으로 한 번에 이동이 가능하다.

전국 불교 복지시설을 찾아주는 안내 기능도 주목할 만하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을 비롯한 불교계 복지시설 226곳을 종합사회복지관·노인·장애인·아동·어린이집 등 유형별로 정리해 이용자가 자신의 주변에서 도움받을 수 있는 곳을 지도로 찾고 이용 대상과 방법을 쉽게 확인하도록 했다.

대표 연암 스님은 “‘절로’는 특정 종단을 넘어 전국의 불교를 한곳에 모으고, 흩어져 있던 정보와 복지의 손길까지 대중이 쉽게 닿도록 잇는 열린 종합포털”이라며 “작은 사찰에는 최신 기능과 디자인을 담은 디지털 공간을, 대중에게는 불교문화와 복지로 들어오는 가장 쉬운 길을 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신중일 기자


불교포털 ‘절로’ 메인화면 캡처.

